



끈끈이주걱 / *Drosera rotundifolia* L.

| 구분   | 설명     |
|------|-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  |
| 속국명  | 끈끈이주걱속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과국명  | 끈끈이주걱과   |
| 과명   | Droseraceae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끈끈이주걱과 여러해살이풀 또는 벌레잡이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라며, 일본, 중국, 대만,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중국, 대만, 러시아 / 한국(전역)</p> <p>형태 : 속근성 여러해살이풀, 벌레잡이식물</p> <p>크기 : 꽃대는 높이 6~30cm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7월</p> <p>앞은 모여나기하고 옆으로 퍼지며 한쪽으로 찌그러진 거꿀달걀모양이다. 아랫부분은 갑자기 좁아지면서 잎자루가 된다. 겉면에는 분비샘이 발달한 긴 털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.</p> <p>꽃대는 잎의 가운데에서 높이 6~30cm정도로 자라며 털이 없다. 꽃은 7월에 하얀색으로 피고, 한쪽으로 치우쳐서 총상꽃차례로 달린다. 꽃받침은 5개로 깊게 갈라진다. 꽃받침조각은 긴 타원모양이고 가장자리에 분비샘이 발달한 털이 있다. 꽃잎은 5개이고 거꿀달걀모양과 비슷하다. 수술은 5개이고, 암술대는 3개인데 2개로 갈라진다. 씨방은 꽃받침 위에 있다. 열매는 삭과고 익으면 3개로 갈라지며, 씨앗의 양 끝에 꼬리 모양의 돌기가 있다.</p> <p>벌레잡이식물이고, 잎을 관찰하는 식물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. 해가 잘 들고 토양이 산성인 습지에서 자란다. 반그늘 상태에서도 잘 자라며 지붕이 안 덮여 있는 맨땅에서 겨울을 나고 성장한다. 씨앗으로 번식시킨다. 작은 벌레가 샘털에 닿으면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샘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의해 소화된다.</p> |